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의식실태 분석 및 지속가능기반 구축방향*

허 승 욱**

Development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ased on Farm Awareness Analysis

Heo, Seung-W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development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ased on farm awareness analysis. To analysis farm management, a series of farm household surveys were conducted on farmers residing in Embong-Myun.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is 108 respectively. As a survey result, satisfaction level about market stability and understanding of upper organization is high, on the contrary, awareness of related organization is low in a relative sense. Most of farmers reveal their intention to susta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ut future agriculturalist and an ageing society that one face as well. In order to establish development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 infrastructure should be consistently expanded. On the other hand, self-supporting ability of farmer's organization and education system attempt to expand for sustainability.

Key words : *sustainability,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organization*

I. 서 론

최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05년에 49,806ha에서 2011년에 172,672ha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실천 농가수 역시 53,478호에서 160,628호로 증가하였다(www.enviagro.go.kr). 이는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에서 비롯된 소비지 시장 여건 측면,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

* 이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교수(swheo@dankook.ac.kr)

한 농가들의 경영성과 제고 측면,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발휘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농약인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5년까지는 일시적인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준한 증가로 시장규모는 2013년에 3조 9,845억원, 2015년 4조 8,329억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6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Chang-Gil Kim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고령화와 도시화,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기반 축소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 중심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업시스템은 존립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산지 중심의 친환경농업 생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지속가능할 수 있으며, 시장 전망 또한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데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연령, 소득, 조직화 등에 대한 인식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경영여건과 인식실태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사례지역 현황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 조직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면단위 생산자 조직 중의 한 곳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면단위 생산자조직들이 연합 형태의 법인을 조직하고 있으며, 생산물의 주요 출하처는 생협이다. 7개 면단위 생산자조직 중 생산자 및 생산 비중이 가장 큰 곳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108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이 중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겸하는 농가가 77가구(71.2%)이며, 전체가 친환경농업인 농가는 31농가(28.7%)이다.

조사표는 크게 일반사항과 통계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한 경영 및 인식실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는 조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면접조사로 2011년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사례지역은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겸하는 농가들이 70% 이상으로 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경영실태 및 향후 전망 분석에 유의미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 표본 중에서 축산을 겸하는 농가의 비중이 4가구로 적어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 생산자 가구 및 연령별 분포

2011년 현재 사례지역의 생산자 가구는 108가구로서 조직 출범 당시인 2000년에 비하여 21.6배 성장하였다. 2002년, 2005년, 2010년에 생산자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기존 관행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 관행농업 비중이 높았으나 갈수록 친환경농업 비중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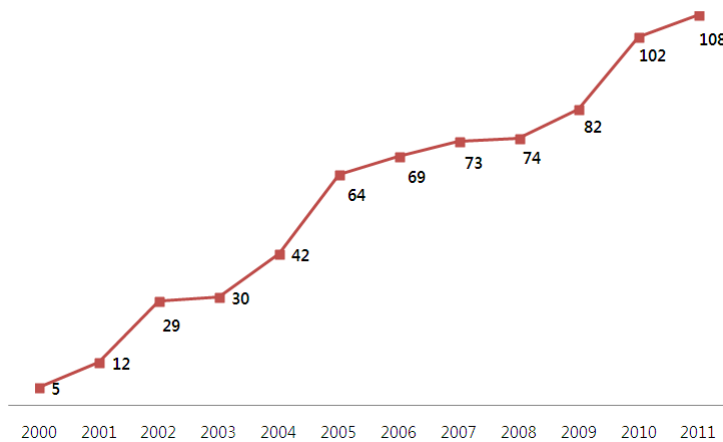


Fig. 1. Farm household change.

경영주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Fig. 2와 같이 50대를 기점으로 고령농가 층이 두터운 반면, 40대와 40대 미만은 상대적으로 얇다. 전체 농가들의 평균 연령은 60.9세이며, 이 중 50대가 3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60대 27.8%, 70대 22.2%, 40대 미만 2.8% 순이며, 80세 이상 고령 농가도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증가 및 생산자 조직화 수준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고령화 추세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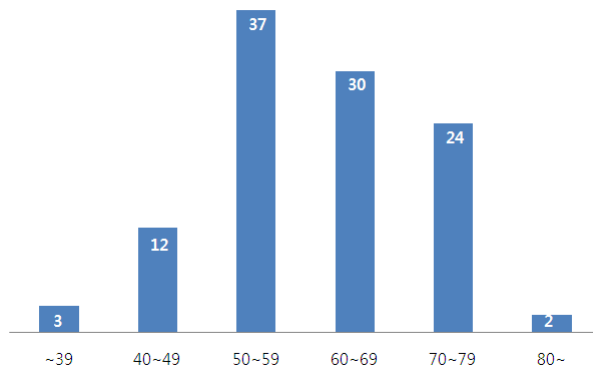


Fig. 2. Farm household by age-group.

2. 관행농업 및 친환경농업 규모

사례지역의 전체 재배면적은 255.6ha이며,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2.4ha로서 충청남도 평균치인 1.54ha보다 높다. 재배면적 중 관행농업 면적은 평균 8,953m²로 37.1%, 친환경농업 면적은 14,879m², 62.9%를 차지하고 있다. 관행농업은 밭 비중이 47.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과수 32.7%, 논 19.6%, 시설 0.4% 순이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은 논이 9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밭 3.4%, 과수 1.3%, 시설 1.2% 순으로 나타났다. 관행농업은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밭작물과 과수가 많은 반면, 친환경농업은 논농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1. Cultivated acreage by types

(unit : m², %)

Content		Rice paddy	Dry paddy	Controlled horticulture	Orchard	Total
Conventional agriculture	Total	185,933 (19.6)	448,634 (47.3)	3,966 (0.4)	310,440 (32.7)	948,973 (100.0)
	Average	1,754	4,232	37	2,929	8,953
	Maximum	19,431	99,174	2,975	33,058	105,785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otal	1,510,905 (94.0)	55,330 (3.4)	19,759 (1.2)	20,933 (1.3)	1,606,927 (100.0)
	Average	13,990	512	183	194	14,879
	Maximum	59,155	16,461	3,829	5,882	59,155

3. 농가소득

사례지역 경종농가의 전체 소득은 340,684만원이며, 이 중 농업소득이 264,809만원으로 77.7%이며, 농외소득은 75,875만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소득 중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은 174,289만원으로 65.8%로 나타났다. 호당 농가소득은 관행농업 896만원, 친환경농업 1,726만원, 농외소득 751만원으로 총 3,373만원으로 나타났다.

Table 2. Farm household income

(unit : 10,000won, %)

Content	General	Environmental	Nonfarm income	Total
Total	90,520 (26.6)	174,289 (51.2)	75,875 (22.3)	340,684 (100.0)
Average	896	1,726	751	3,373
Maximum	10,000	6,589	8,000	11,601

소득 중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구성비가 대략 8:2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소득 구성비인 3:7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사례지역은 오랜 지역농업 추진으로 농업 중심의 소득구조가 안정되었고, 상대적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Table 3. Farm household income contracted with living cooperative association

(unit : 10,000won, %)

Content	Rice paddy	Dry paddy	Controlled horticulture	Orchard	Nonfarm income	Total
Total	146,573 (58.6)	8,304 (3.3)	11,242 (4.5)	8,170 (3.3)	75,875 (3.03)	250,164 (100.0)
Average	1,451	82	111	81	751	2,477
Maximum	6,589	4,491	2,521	2,178	8,000	11,601

생협 출하 경종농가들의 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도작으로 58.6%이며, 다음이 시설 6.4%, 노지 밭작물 4.8%, 과수 4.7% 순이다. 경지면적 비중과 비교해보면, 수도작 면적이 94.0%인데 비하여 소득 비중은 58.6%로 적고, 시설 재배면적은 1.2%로 적은 반면 소득은 6.4%로 높음을 알 수 있다.

Ⅲ.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의식실태

1. 소득 및 가격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하여 소득 및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생협 생산자로 가입한 이후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으며,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는 의견(3.37)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생협 생산자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3.27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협 가격은 인상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9로 높았으며, 품목별로 최근 5~10년간의 출하 가격, 관행농산물 가격,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수취가격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협에 친환경산물을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견해가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협 출하 생산자조직의 장점 요인으로는 주로 안정적인 판로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인 가격 50.0%, 소득 안정 22.2%, 환경생태계 보호 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의 인정이나 도농교류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생산자들이 생협 출하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안정된 판로에 기초한 소득 안정이지만, 생협 판매가격 인상 등 생산자수취가격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Table 4. Sales advantage to living cooperative association

(unit : person, %)

Content	Frequency	Ratio
Stable market	72	66.7
Stable receiving price	54	50.0
Stable income	24	22.2
Conservation of ecosystem	23	21.3
Guarantee of production cost	17	15.7
Cooperation with farmers	15	13.9
Exchange between rural and urban	7	6.5
Acknowledgment of community	3	2.8
Total	215	(108=100.0)

* duplication response

2. 조직 인지도 및 의사소통

1) 연관조직에 대한 인지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례지역 생산자조직은 면단위 조직이며, 상위조직인 영농조합법인 내에 다양한 조직과의 환류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위조직과의 환류관계와 연관 조직들의 사업과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상위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4.24, 4.13으로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자 의견이 업무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3.81로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5. Awareness of upper and related organization

(unit : person, %)

Upper organization	Awareness of alliance's task		Awareness of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s task		Reflection level of farmer's opinion	
		4.24		4.13		3.81
Related organization	A			B		
	Know	Don't know	Total	Know	Don't know	Total
	68 (63.0)	40 (37.0)	108 (100.0)	52 (48.1)	56 (51.9)	108 (100.0)

연관 조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A축산과 B식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비율은 63.0%, 48.0%이며, 모르고 있다는 비율이 37.0%, 5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관 조직들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낮았으며,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조직 전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역 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은 생산자들의 전사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조직 내 의사소통 경로

조직 내 의사소통 경로는 반모임이 8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실무자 29.6%, 지회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같은 반 소속 회원 농가에게 듣는 정도인 경우는 1.8%로 조직 내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소식지, 안내책자, 간행물, 문자, 교육 때, 직접 방문 등이다.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반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모임은 월 1회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례지역의 반모임 횟수는 2011년에 7.6회로서 반모임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Table 6. Communication with upper organization

(unit : person, %)

Content	Frequency	Ratio
At working group meeting	87	80.6
From staff	32	29.6
Through branch	24	22.2
At general meeting	16	14.8
From same working group member	11	10.2
From another working group member	1	0.9
Absolutely not	1	0.9
Others	28	25.9
Total	200	(108=100.0)

* Duplication response

3. 친환경농업의 지속 의향 및 후계 인력

1) 친환경농업의 지속 의향

사례지역 대다수의 생산자(96.3%)가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정하거나 관행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2.8%, 0.9%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가격 및 소득(판매 및 소비)구조의 안정성과 생산자조직의 내적 결집력이 강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향이 50.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곧 전환하거나 몇 년 후에 전환하겠다는 의향이 24.7%이며, 전환의사가 별로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24.7%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자조직 규모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친환경농업 규모는 증가에 한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후계 인력

후계 인력과 관련하여 지금 규모의 친환경농업을 이어 갈 후계자가 없다는 응답 75.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후계자가 있는 응답자는 26가구(24.1%)에 불과하였다. 친환경농업 후계자가 있다는 26명의 응답자 중 누구를 후계자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들이 80.8%로 대부분이며, 사위와 기타가 각각 1가구, 4가구로 나타났다.

Table 7. Future agriculturalist status

(unit : person, %)

Status	Yes	No	Non-response	Total
	26 (24.1)	81 (75.0)	1 (0.9)	108 (100.0)
Future agriculturalist	Son-in-law	Son	Others	Total
	1 (3.8)	21 (80.8)	4 (15.4)	26 (100.0)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중단할 경우, 농지처분방법에 대해서는 처분(12.3%), 상속(51.9%), 기타 등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이며, 영농단 경영위탁(3.7%), 귀농자에 임대(12.3%), 노후보장시 생협 기부(1.2%) 등은 지속성이 확실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기반 보전이 확실한 비율은 17.3%이며, 불확실한 경우는 8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후계인력이 없는 75.0% 가구들은 폐업시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밖에 없어 지역농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기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IV.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기반 구축방향

친환경농업 실천의 지속가능성은 생산, 후계인력, 생산자조직, 소득, 교육·복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면 단위 생산자조직의 친환경농업 인식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기반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 노력

생산자들의 실질소득 증대는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 노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지역 가구들이 제시한 소득증대 방안을 살펴보면, 생산면적의 증가(65.7%),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25.9%), 가공식품 개발(20.4%), 약정물량의 증가(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유기재배로 전환(8.9%), 생협 이외 판로 개척(5.6%),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생산(5.6%), 가격인상(3.7%), 단지형성 및 이모작 등 경지이용 증가(1.9%),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0.9%) 등이었다.

Table 8. Scheme for stable farmer's income

(unit : person, %)

Content	Frequency	Ratio
Farmland expansion	71	65.7
Exchange to high-income item	28	25.9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	22	20.4
Expansion of ontract cultivation	17	15.7
Exchange to organic farming	14	13.0
Find a market	6	5.6
Curtail the cost of production	6	5.6
Price advance	4	3.7
Expansion of farmland availability	2	1.9
Agricultural machinery support	1	0.9
Total	171	(108=100.0)

* Duplication response

사례지역은 우리나라의 다른 농촌지역과 달리 소득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바탕으로 한 소득증대 방안 도출이 중요한데, 이 지역에서는 생산면적 증가(생산의 규모화)에 대한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품목 전환 또는 가공식품 개발 등의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전체 조직 차원에서 고령, 이전 등의 이유로 폐업하는 농가들의 생산기반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용 토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어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

생산기반 유지 및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는 고령화에 대한 영농대체 인력 및 조건이 구비되고, 영농규모가 작은 젊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생산단위 내에서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승계나 매매 등의 경작자 변경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면적 이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필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야지대는 자연적인 증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이나 매매, 수질문제 등 다양한 변수 존재하기 때문에 산촌 또는 새로운 산지를 발굴, 개척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귀향, 귀촌, 귀농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귀향, 귀촌, 귀농의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후계인력 육성 차원에서라도 귀향 및 귀농자들이 지역에

안착,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소득기반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사례지역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사례지역은 생협을 중심으로 인근 대도시 학교급식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의 안정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산지 조직화와 역량 강화이다.

2. 생산자조직의 자립·자치역량 강화

지역농업의 발전은 지역 여건에 근거한 생산자조직을 얼마나 내실 있게 만들고, 확대 재생산적인 역량 강화 여부에 달려있다. 지역단위 생산자조직은 농업 구조재편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의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단위 공동체의 자립과 자치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이는 마을 만들기 또는 지역 만들기가 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하며, 소비자들의 가치 또한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 내적 요인으로도 조직과 생산자의 동반 성장과 생산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찾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자립과 자치 역량은 고령화에 대한 유효노동력의 대체와 농업방식(협업, 공동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외부자원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지역단위의 자원순환구조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서는 첫째, 지역단위 생산자조직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생산자조직 자립도 제고 및 유효인력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방식이 다각화되어야 한다. 넷째, 농자재 공동제조 및 살포, 농기계 공동이용 등 협업적 농업방식의 생산자조직 활동을 통한 노동력 분산과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생산자조직 역량수준 및 조건에 따른 공통적인 방향과 독자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한 생산자조직은 생산관리 및 조직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생산과 출하에 대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며, 생산관리 부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관리부 또는 정책기획부와 같은 실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조직 운영과 세분화된 규정집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3. 교육시스템 확충을 통한 발전토대 강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확산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시스템 구축

이다. 사례지역 생산자들은 교육 중 강화해야 될 내용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이 35.7%로 가장 많았고, 농업경영 교육(20.3%), 마을공동체 교육(11.2%), 정부 농업정책 교육(10.5%), 생협 이념교육(9.8%)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기존 교육은 신규자에게 중점적으로 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새로운 내용과 품목별 교육, 재배경험 있는 생산자들의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9. Needs on education contents

(unit : person, %)

Education contents	Frequency	Ratio
Technology	51	35.7
Agricultural management	29	20.3
Community	16	11.2
Agricultural policy	15	10.5
Cooperative ideology	14	9.8
Others	18	12.6
Total	143	100.0

* Duplication response

교육시스템 확충을 통한 발전토대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선택적 선별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부모임, 조직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참여 등 새로운 형태의 리더육성 프로그램이나 정기적 생산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둘째, 조직내부의 결속력과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외부와의 유연한 소통을 담보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갖는 사회적 참여와 실천에 관한 의식 강화 등 다기능성에 대한 상호교육이 핵심이 되기도 한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핵심은 차기 리더그룹의 양성 및 육성이다. 젊은 생산자를 중심으로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외부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 등의 정규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면단위 생산자조직의 108농가를 조

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 소득, 조직화 등에 대한 의식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과 생산자 의식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모든 농업·농촌이 처한 여건과 마찬가지로 사례지역 농가들의 평균 연령은 60.9세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였지만,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2.4ha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을 겸하는 농가 비중이 많았으며, 호당 농가소득은 3,373만원으로 전국 평균치와 비슷하였지만,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 비중이 약 80%로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의 의식실태 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판로의 안정으로 인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생산자조직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는 높았지만, 연관 조직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다수의 생산자가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후계인력이 부재한 가구가 많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례지역은 안정된 판로와 강한 인적 결합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경영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고 있지만, 후계인력의 부재라는 위협요인에 직면해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안정된 유통망을 기반으로 소득기반을 안정화하고 후계인력 양성, 노동력 부족 해결, 농기계 임대 지원, 생산기반 유지,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등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자조직의 자립·자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조직부문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조직의 유지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내 모든 부문간의 원활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회적 인지도 제고 노력과 실무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셋째, 교육시스템 확충을 통한 발전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논문접수일 : 2012. 11. 14. 논문수정일 : 2012. 11. 29. 최종논문접수일 : 2012. 12. 13.]

참 고 문 헌

1. Chang-Gil Kim, Hak-Kyun Jeong, and Dong-Hyun Moon. 2012. 2.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ud and Market Prospect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KREI Policy Research Paper. p. 157.
2. Seung-Wook Heo. 2011. To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39.

3. Seung-Wook Heo and Ho Kim. 2010. An Analysis on Consumer's Satisfaction Attributes and factor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8(1): 41-53.
4. Jae-Hyun Hwang. 2009.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7(3): 329-345.
5.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www.enviagro.go.kr)